

## 본회 전북도협의회 불우이웃에 돼지고기 전달 및 위문 -송정기 도협의회장 및 253 회원농가 참여



▲송정기 본회 전북도협의회장(오른쪽)이 유종근 전라북도지사(왼쪽)에게 불우이웃에 전해달라며 돼지고기 기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IMF 한파에 굴하지 않고 양돈경영에 전념해 온 양돈인들이 뜻을 모아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내는 이웃들을 찾아보고 고통과 인정을 함께 나누어 화제가 되고 있다.

본회 전북 도협의회 송정기 회장은 지난 해 12월 22일 전라북도 각 지역 지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종근 전라북도 도지사에게 송정기 회장 외 253 회원농가가 기증한 돼지 101마리(싹가 1천8백만원 정도)를 기증하였다.

또한, 그 뒷날인 23일에는 본회 회원 및 도 관계자가 도내 사회복지시설 62개소(4,752명)를 방문하고 돼지고기 지육을 시설당 1~5마리분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은 농림수산국장 복지여성국장도 행사에 참여하여 각각 전주시 갈멜산 요양원과 동암 재활원을 찾아가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하기도 하였다.

연말연시 정성이 가득 담긴 돼지고기 선물을 받아 수용자 전원이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는 감사의 편지와 전화가 뒤 이어진 이 행사는 IMF로 힘든 이 시기에, 나도 힘들지만 더욱 힘든 불우한 이웃을 도우는 우리 양돈인들의 따사로움과 정 많음을 한껏 표현해 주는 미담이 되고 있다. **양돈**